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년 1학기	학번	2023-13951
파견국가	독일	소속	공과대학 건축학과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성명	박희수

I. 교환 파견 동기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한 번쯤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해외에서 생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활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나 행정적인 문제부터 일상 속 크고 작은 일들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과정을 통해 보다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고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제가 파견된 학교는 독일 아헨에 위치한 RWTH Aachen University입니다. 아헨은 독일 서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에 인접한 대학 도시로, 학생 비중이 높으며 국제학생과 교환학생도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했으며, 치안도 좋은 편입니다.

또한 기차로 한 시간 내외 거리에 쾰른이나 뒤셀도르프와 같은 큰 도시가 있어 필요할 때 쉽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에 인접해 있는 만큼 네덜란드와 벨기에로도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아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Semester Ticket을 이용해 일부 지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자주 방문했습니다.

아헨 주변에는 쾰른/본 공항과 뒤셀도르프 공항 등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여러 곳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주변 국가와 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여행하기에도 적합한 위치라고 느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출국했습니다.

비자 신청은 입학허가서, 재정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한 뒤 인터뷰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시기에는 인터뷰 일정이 많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12월 초에 서류 준비와 신청을 마쳤고, 1월 중순에 인터뷰를 진행한 뒤 약 일주일 후 실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출국 전까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 행정 절차는 예약이나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다른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추고 있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출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기숙사

저는 아헨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이메일로 안내해 준 신청 링크를 통해 지원했으며, 교환학생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용 방의 경우 침대와 옷장 등 기본적인 가구가 갖추어져 있어 별도로 가구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교환학생용 기숙사에 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General Admission을 통해 아헨 지역의 일반 대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많아 실제 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서 없이도 General Admission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헨으로의 파견이 확정된 경우라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한 기숙사의 월세는 약 300유로였으며, 개인 방을 사용하고 주방과 화장실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기숙사는 아헨 중앙역과 가까워 다른 도시나 국가로 여행할 때는 편리했지만, 학교 건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RWTH Aachen의 건물들이 아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도시 자체의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숙사의 위치가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3. 기타 비용 및 준비사항

학교에 등록하면서 약 300유로 정도의 등록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해당 비용에는 독일 전역의 지역 대중교통과 네덜란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Semester Ticket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 생활과 근교 이동 시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보험의 경우 저는 TK 공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약 140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공보험에 비해 사보험은 비용이 훨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과 보장 범위를 충분히 비교해 본 뒤 본인에게 적합하다면 사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현지에서 사용할 은행 계좌로는 N26과 Expatrio 계좌를 이용했으며, 통신은 fraenk eSIM을 사용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유심 등은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준비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출국 전에 미리 개설하거나 가입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 보험, 은행 계좌, 통신 등 기본적인 행정 및 생활 준비를 출국 전에 어느 정도 마쳐두면 현지 도착 후 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아헨공대의 수강신청은 RWTHOnline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수강 인원 제한이 없고, 수강신청 기간도 두세 달 정도로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는 관심 있는 과목을 여러 개 신청해 직접 수업을 들어본 뒤, 실제로 수강할 과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험 등록입니다. 독일 대학은 한국 대학과 달리 수강신청과 시험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했다라도 시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험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강과목

학부수업의 경우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되어서 저는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Algorithmic Game Theory

알고리즘 게임 이론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석사 수업인 만큼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매주 Exercise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시험 역시 난이도가 높았고 1차 시험의 경우 약 절반 정도의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부담이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이 많이 수강하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 단순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Digitalization and AI in Process Automation

공장 및 공정 자동화와 관련된 이론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았으며, 시험도 계산보다는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암기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비교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Fundamentals of Business Process Management

Business Process Management(BPM)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학기 중 비교적 시간이 많이 필요한 팀플 과제가 두개 있었지만, 시험은 오픈북이고 전반적인 내용의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강의도 대부분 녹화 강의였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수강하기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V. 생활

1. 식생활 및 물가

독일의 마트 물가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외식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어서, 기숙사에서는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학교 식당인 Mensa를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헨 시내에는 규모가 큰 아시안 마트도 있어 라면이나 각종 조미료 등 기본적인 한식 재료를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생필품이나 식재료는 현지에서 구매해도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상비약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바로 구하기 어렵거나 익숙한 제품을 찾기 힘들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교통과 여행

아헨에서는 주로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다양한진 않아 자전거를 구매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주로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Semester Ticket을 통해 지역 열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근교 도시를 방문할 때 특히 유용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는 주변 국가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헨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에 가까워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편리했고,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기차와 버스는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나 환승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 시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학교 및 여가 생활

학업 외 활동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펜싱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과 별도로 수강신청이 진행되며, 수업에 따라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펜싱뿐만 아니라 발레나 하키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한 번쯤 수강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기타

또한 현지 행정은 한국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지 등록이나 학교 행정 업무 등은 가능한 한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 기간 동안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하며 독립성이 크게 성장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등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현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